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Consumption Expenditures by Occupation of the Household Head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조교수 최 현 자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Choe, Hyunja

〈목 차〉

- | | |
|---|--------------------------------|
| I. 연구의 배경 | Ⅲ.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차이 |
| II.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변화 (1977~1996) | IV. 맺음말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degree of similarities and/or differences of consumption expenditure styles among the households with different occupation. Two types of analysis were performed. One was comparative analysis which used to identify the changes of consumption expenditure styles among different occupation classes using time-series data of 1977-1996 Korean Urba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and Rural Household Economy Survey. The other was multivariate analys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ccupation on consumption expenditure styles with 1551 sample household data from 1996 Korean Urba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ces in consumption styles among different occupation classes including farmers are diminished during last two decades while there still exist some degree of differences in consumption styles. After controlling other socio-economic factors, it is found that occupation is a determinant of consumption patterns of urban wage earners, especially, consumption for clothing and health items.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I. 연구의 배경

직업(occupation)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 일의 유형을 지칭하는 것으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의 사회적·기술적 구성을 의미한다(Hodson & Sullivan, 1995, Rothman, 1997, 홍두승 외, 1999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단순한 생계유지수단 이외의 부가적 의미를 지닌다. 직업에 따라 노동상황이나 보수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작업장이나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달라져 직업의 위계화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물질적 보상이나 사회적 지위, 및 생활기회의 수준 등에 있어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직업은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단일 지표로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김영모, 1982; 홍두승, 1983, 1988). 즉 동일한 직업유형에 속한 가계는 비슷한 가치관과 흥미, 소비생활양식 및 소비행동패턴을 갖는 동질적인 집단인 하나의 사회계층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업유형에 따라 소비지출양식이 달라질 것임을 의미하며 결국 사회의 직업구성이 변화하면 총체적인 사회의 소비모습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의 직업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농·림·어업 종사자의 감소를 들 수 있다. 1955년 전체 취업자의 79.5%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였으나 이후 급감하여 1995년에는 16.1%만이 농·림·어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다른 직업유형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같은 기간 중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직업유형은 서비스직으로 2.1%에서 11.8%로 무려 561.9%p나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무직은 2.4%에서 14.5%로 늘어났다. 전문·관리직의 경우 2.8%에서 14.8%로, 판매직은 4.5%에서 15.8% 그리고 생산직은 8.7%에서 27.0%로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의 향후 추이는 직업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농·림·어업 종사자의 감소와 전문·관리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의 증가는 지속될 것이며 사무직과 판매직은 정체된 모습을 보일 것이나 1990년까지 급상승하여 현재 취업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생산직의 경우 감소가 예상된다(홍두승 외, 1999).

이러한 직업구성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소비모습

에 어떠한 형태로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력의 재생산 측면에서 계층별 소비지출양식의 변화(1983-1991)를 조명한 백옥인(1994)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세계층에서 정신적 재생산과 문화에 대한 욕구가 확산되어 이와 관련된 소비지출이 늘고 있으며 계급간에 소비추세가 수렴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도시가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노동자계급의 생산직과 비교하여 다른 계급의 소비지출액의 차이만을 밝힐 뿐 소비지출양식의 구체적인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소비지출양식이란 생활양식의 하위영역 중 하나로 소비패턴과 유사한 개념이다. 즉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여운승, 1996)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계의 소비행태와 복지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경제학이나 소비자학에서 사용하는 소비패턴의 의미는 여러 범주의 소비항목별로 소비자가 지출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나 마케팅에서는 동일 소비범주에 속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제품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학에서는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 형성하게되는 사회적인 관계의 양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소비패턴이란 의미가 학문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될지라도 소비범주의 유형별 차이가 결국 유형별 지출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자의 입장은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여운승, 1996). 따라서 직업계층 혹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가계가 특정한 소비지출양식을 보유하고 또 이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이들이 주어진 소득을 소비지출비목들에 어떠한 형태로 배분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므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는 총소비지출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지위를 밝힌 앵겔법칙이 발표된 이후 여러 연구 영역에서 널리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은 집단으로서의 동일 직업유형을 지닌 가계의 소비행동을 밝히기보다는 개별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왔다. 즉 일반적인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평균적인 가계의 소비모습을

설명하거나 (김정숙, 1992; 양세정, 1991), 직업이외의 가계특성(예를들면, 가정생활주기 혹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가계를 구분하고 이들의 소비지출양식의 집단간 차이를 밝히거나(노윤주·이연숙, 1997; 문숙재·정순희, 1995) 혹은 가계의 특성이 가계의 소비지출구조나 특정 소비비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기욱·이승신, 1990; 김영숙, 1996; 김영숙·심미영, 1994; 김영숙·왕인숙, 1989; 박명숙·류정순, 1998 배미경·박광희, 1997; 양세정, 1993, 1998; 제미경·박명희, 1993; 최현자, 1996; Choe, 1999)가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유형에 따라 각 가계의 사회적인 지위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가계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나 선호도도 달라 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977년에서 1996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와 농가경제조사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변화를 양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1996년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소비비목별로 소비함수를 추정하므로써 직업이외의 모든 사회경제학적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직업유형간의 소비지출양식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차이의 유무를 밝힐 수 있다면 직업유형이 계층을 구분하는 단일 지표로서 적합함을 재입증 하는 것이며 향후 이루어지는 직업구성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생활양식의 변화를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각기 다른 직업계층에서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밝혀내므로써 이들의 경제적 필요와 소비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변화 (1977~1996)

본 절에서는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

양식의 변화를 소비지출규모와 소비지출구조로 나누어 1977년에서 1996년까지 지난 20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사무직가계를 기준으로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라 총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와 그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1977년의 비목별 실질지출을 기준(100)으로 총소비지출과 소비비목별 지출의 변동지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의 가구주 직업별 소비지출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각 비목별 실질 소비지출이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의 변화추이를 보았다.

1. 연구자료 및 변수의 정의

실증분석 자료로 1977년에서 1996년까지의 도시가계연보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의 소비지출에 대한 가구 당 연간 월평균치를 사용하였다. 1977년 이전의 자료는 조사대상가계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게 제공되어 있으며 1996년 이후의 자료는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해 결과의 편의를 가져올 수 있어 제외시켰다.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정상적인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수준 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1963년부터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농가경제조사는 일정 면적 이상 (10 a) 경지를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는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농가경제구조 및 경영실태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농가소득, 소비수준, 노동실태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1963년부터 농림부(당시 농수산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이관받아 수행되어 왔다.

직업유형의 분류는 먼저 농업직과 비농업직으로 대별하고 비농업직의 경우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자영직과 임금·봉급근로자(근로자)로 구분하였으며 임금·봉급근로자는 다시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및 생산·기능직으로 세분하여 6개의 직업유형으로 분류하였다.¹⁾ 소비지출비목의 분류는

1) 농가경제조사는 1998년 7월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되었으며 1998년의 경우 전국 314개 표본조사구에서 3,14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농가경제조사가 도시가계조사와 달리 8대 비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에 따라 식료품비, 주거·가구 및 가사용품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등 8대 비목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직업유형의 재분류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직업유형을 합하는 경우 각각의 소비비목별 평균치를 다시 가중평균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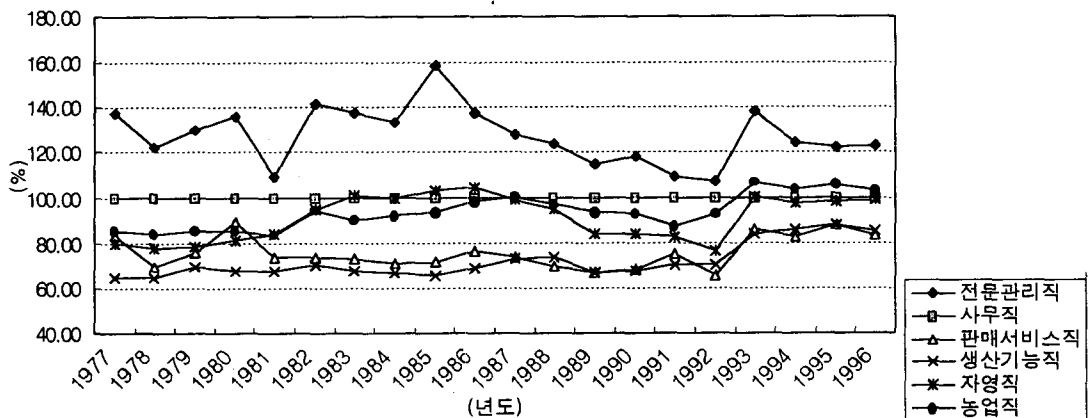
2. 가구주의 직업별소비지출 규모의 변화

지난 20년동안의 가구주의 직업별 소비지출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사무직가계를 기준으로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라 총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와 그 변화를 살펴보았으며(그림 1 참조, 1977년의

비목별 실질지출을 기준(100)으로 총소비지출과 소비비목별 지출의 변동지수를 제시하였다(표 1 참조).

(그림 1)을 통해 먼저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총 소비지출규모의 차이와 그 변화를 살펴보면 총 소비지출규모의 차이가 1985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직업간의 소비지출규모가 점차 수렴해감을 알 수 있다. 특히 1993년 이후 전문·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유형에서 소비지출규모가 상향조정되었으며 농업직과 자영직 종사자의 소비지위가 사무직종사자보다 높게 혹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1977-1982년에는 소비지위가 전문·관리직, 사무직, 농업직, 자영직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1982-1987년에는 전문·관리직, 자영직, 사무직, 농업직의 순으로 그리고 1988-1992년에는 전문·관리직, 사무직, 농업직, 자영직의 순으로 나타나 특히 자

〈그림 1〉 직업유형별 총소비지출 규모의 변화 비교(사무직=100)



- 2) 도시근로자가계의 가구주직업분류가 1993년까지는 전문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 사무 및 관련직종사자,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생산·운수장비종사자 및 단순노무자 그리고 군인 및 기타분류불능자 등 모두 7개로 분류되어 가계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1994년부터는 분류방법을 개정하여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및 시장판매관리자, 기능관련근로자, 장치 및 기계조직원, 단순노무직근로자 그리고 군인 및 기타 등 9개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계열 분석에서는 자료의 일관성의 결여로 인해 전문기술 및 관련직종사자와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 또는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그리고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전문·관리직으로, 판매종사자와 서비스종사자 또는 서비스 및 시장판매관리자를 판매·서비스직으로, 그리고 생산·운수장비종사자 및 단순노무자 또는 기능관련근로자, 장치 및 기계조직원, 단순노무직근로자를 생산·기능직으로 재정의 하였으며 군인 및 기타분류불능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영직의 소비지위 변화가 큼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생산·기능직과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낮은 소비지위를 보이며 최근 들어 판매·서비스직의 소비지위가 생산·기능직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총 소비지출규모와 변화양상을 통해볼 때 전문·관리직의 소비지출 규모는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크고 그 변화도 심한 반면, 사무직, 농업직 및 자영직은 비교적 비슷한 지출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기능직과 판매·서비스직이 동질적인 소비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을 통해 총소비지출의 양적변화를 살펴보면 생산·기능직에 종사하는 가계가 가장 많은 증가를 보여 지난 20년간의 물가상승분을 고려할 때 4배의 소비지출 증가를 나타냈으며 농업직과 자영직에 종사하는 가계도 총소비지출이 약 3.8배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그리고 전문·관리직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유형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소비지출비목은 외식비로 전문·관리직에서는 8.6배가 증가하였으며 생산·기능직 가계는 18.6배 그리고 자영직 가계는 무려 20.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직에 종사하는 가계에서는 기타

소비(10.6배), 보건·의료비(6.9배) 및 교통·통신비(6.5배) 다음으로 높은 증가를 보여 지난 20년 동안 6.3배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증가를 나타낸 비목은 기타소비지출과 교통·통신비로 기타소비지출은 특히 생산·기능직가계, 자영직가계, 및 농업직가계에서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교통·통신비는 판매·서비스직과 생산·기능직가계에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전문·관리직과 사무직가계는 비목별 실질소비지출의 증가 순서가 동일하여 외식, 기타소비, 교통·통신, 교육·교양오락, 주거·가구 및 가사용품, 보건·의료, 피복·신발, 광열·수도, 그리고 식료품의 순이었으나 판매·서비스직 가계에서는 보건의료와 피복·신발비가 주거·가구 및 가사용품비 보다 더 높은 증가를 보였다. 한편 생산·기능직 가계와 자영직가계는 다른 직업유형의 가계와는 다르나 두 집단간에는 비목별 실질소비지출의 증가 순서가 동일하여 외식, 기타소비, 교통·통신, 교육·교양오락, 보건·의료, 주거·가구 및 가사용품, 피복·신발, 광열·수도, 그리고 식료품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농업직으로 보건·의료비의 증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표 1〉 가구주 직업유형별 실질소비지출 변동지수 (1977=100)

(단위 : %)

직업 \ 소비비목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	자영직	농업직
총소비지출	278.2	311.2	309.8	408.9	375.8	383.5
식료품	175.9	184.4	170.8	233.8	214.6	175.0
(외식)	861.2	941.8	895.3	2,056.8	1,864.0	627.7
주거·가구 및 가사용품	254.7	331.2	324.5	400.3	423.0	271.4
광열·수도	198.0	211.8	261.4	306.7	254.2	236.7
피복·신발	215.6	293.4	325.5	349.2	351.1	259.7
보건·의료	250.6	304.0	503.5	488.6	513.5	686.4
교육·교양	357.8	392.9	546.8	779.2	571.4	407.0
교통·통신	624.5	631.3	854.0	851.2	667.7	648.3
기타소비	680.3	886.9	690.2	1,333.8	1,175.3	1,055.5

켰다.

실질소비지출 변동지수를 통해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차이를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가계 그리고 생산·기능직과 자영직 가계가 각각 소비비목간에 유사한 증가추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농업직종사 가계는 다른 직업유형과는 상당히 다른 비목간의 양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앞서 직업유형별로 사무직과 비교한 총소비지출규모의 변화추이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3. 가구주의 직업별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

다음의 (그림 2)~(그림 10)은 지난 20년 동안의 가구주 직업별 소비지출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각 비목별로 실질 소비지출이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이 비교한 것이다. 거의 모든 소비비목에서 농업직은 타 직업유형과 다른 소비구조와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농업직을 제외한 직업유형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지출구조의 변화추이를 요약하면 지출비중의 '지속적인 감소', '증가후 감소' 및 '지속적인 증가' 등 세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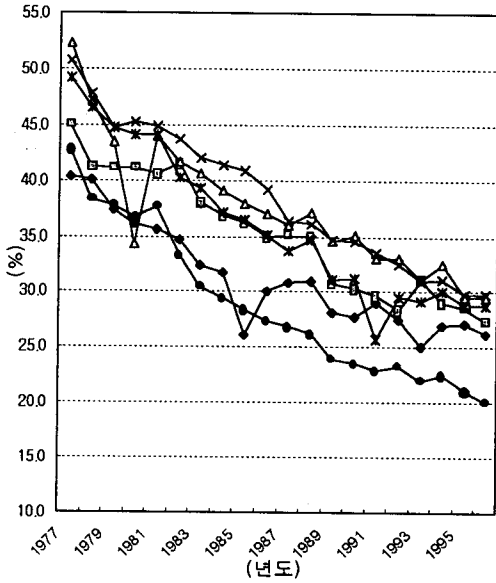
먼저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낸 소비비목은 식료품비(그림 2)와 피복·신발비(그림 3)로서 1977년 총소비지출에서 40-50%를 차지하던 식료품비 지출비중이 1996년에는 20-30%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전 기간에 걸쳐 생산·기능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다음으로 자영직과 사무직 그리고 전문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음의 두 직업유형과 같이 육체노동을 주로하는 농업직의 경우 노동력의 재생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높은 식료품비 지출비중이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가장 낮은 지출비중을 보였다. 이는 농가의 자가생산물의 소비가 식료품비에 환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피복·신발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1980년대 중반까지 전문·관리직이 가장 높은 지출비중을 보였으나 90년대 초반 이후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농업직의 경우 변화추이는 다른 직업유형과 유사하나 지출비중은 매우 낮아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비목이다. 직업유형간의 지출비중의 차이는 두 소비비목에서 모두 농업직을 제외한다면 점차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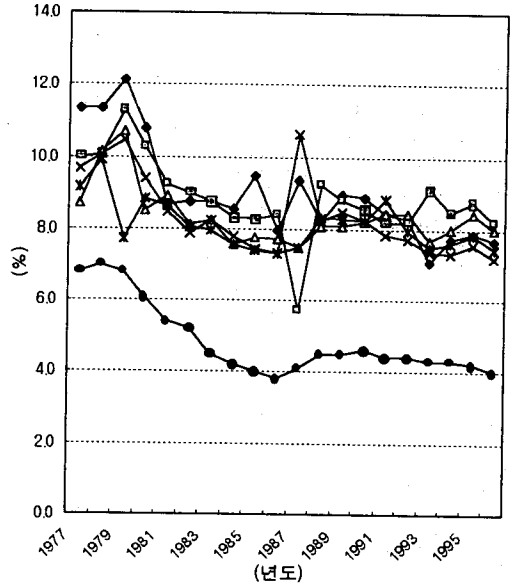
지출비중이 지속적인 증가 후 다시 감소하고 있는 소비비목은 광열·수도비(그림 4), 주거·가구 및 가사용품비(그림 5) 그리고 보건·의료비(그림 6)이다. 80년대 중반까지 자영직이나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 그리고 사무직가계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광열·수도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90년대에 들어 지출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다른 유형의 직업군에 비해 농업직은 90년대에 들어 오히려 예산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으며 직업유형간의 차이는 80년대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다 점차 수렴해가고 있다. 주거·가구 및 가사용품비의 경우 전반적으로 생산·기능직과 자영직에서 월세자가 많아 높은 지출비중을 보였다. 1980년 이후 시기에서는 90년을 정점으로 주거·가구 및 가사용품비의 지출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직업간의 차이도 수렴하고 있다. 보건·의료비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서 지출비중이 컸으나 최근 들어서는 생산·기능직과 자영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농업직에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연계해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지출비중이 증가한 소비비목은 외식비(그림 7), 교통·통신비(그림 8) 및 교육·교양오락비(그림 9)와 기타소비(그림 10)이다. 외식비와 교통·통신비의 경우 86년과 92년을 기점으로 모든 직업유형에서 지출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교육·교양오락비는 직업유형별로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직업유형간의 외식비지출비중의 차이는 농업이외의 직업간에는 동일한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들어 판매·서비스직에서의 두드러진 증가와 농업직의 상대적인 증가폭 둔화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교육·교양오락비는 1980년대 후반까지는 전문·관리직과 농업직에서 높은 지출비중을 보였으나 그후 자영직가계에서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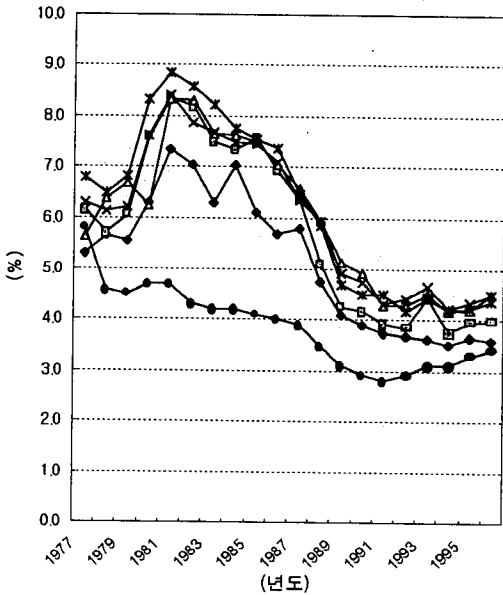
〈그림 2〉 직업유형별 식료품비 지출비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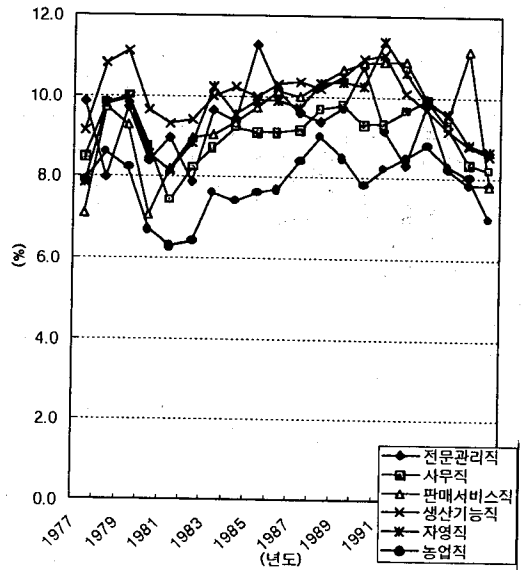
〈그림 3〉 직업유형별 피복·신발비 지출비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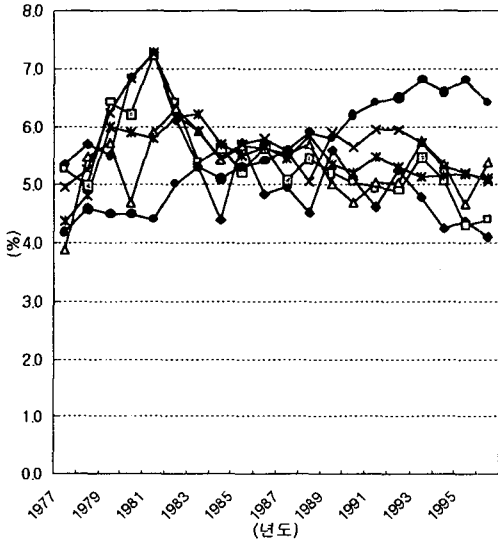
〈그림 4〉 직업유형별 광열·수도비 지출비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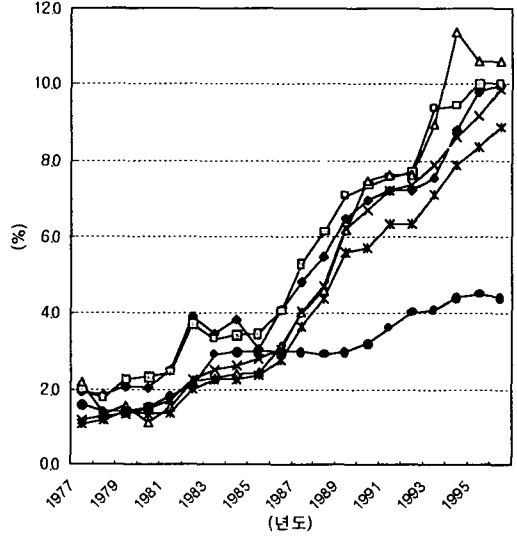
〈그림 5〉 직업유형별 주거·가구 및 가사용품비 지출비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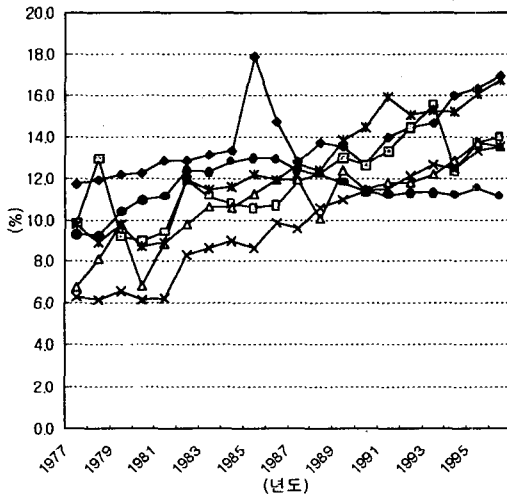
〈그림 6〉 직업유형별 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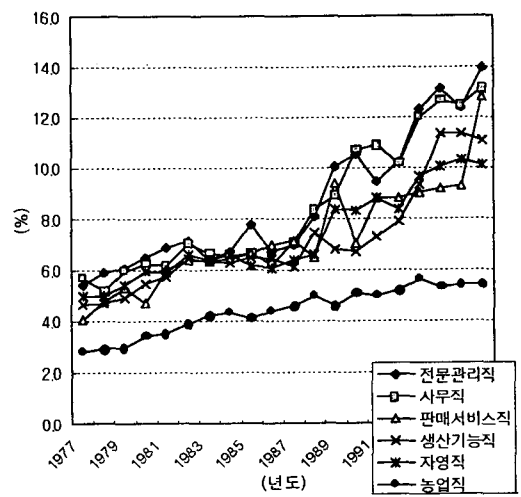
〈그림 7〉 직업유형별 외식비 지출비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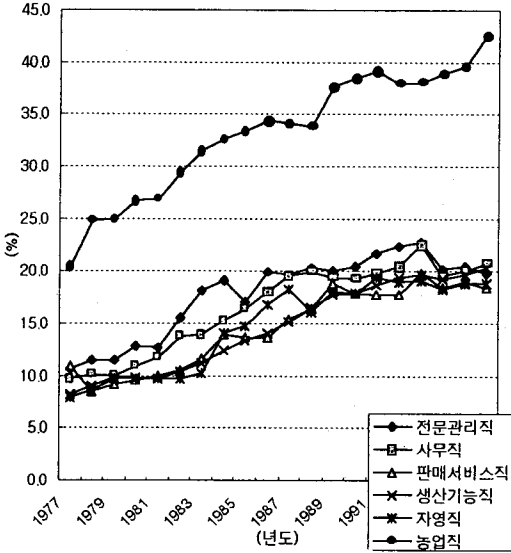
〈그림 8〉 직업유형별 교육·교양오락비 지출비중의 변화



〈그림 9〉 직업유형별 교통·통신비 지출비중의 변화



〈그림 10〉 직업유형별 기타소비 지출비중의 변화



비중이 높아졌으며 농업직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통·통신비는 전 기간에 걸쳐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이들의 지출비중 증가 또한 타 직업유형에 비해 커서 8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직업간의 격차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가장 많은 예산을 기타지출에 할당하는 직업유형은 농업직으로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가계에 비해 거의 두배 이상을 할당하고 있다. 농업이외의 직업유형간에는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변화양상 또한 동일하게 나타났다.

직업유형간 소비지출구조의 차이를 요약하면 먼저, 농업직과 농업이외의 직업유형과는 거의 모든 소비비목에서 소비지출구조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변화양상도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외식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소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직업유형간에 차이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광열·수도비, 주거·가구 및 가사용품비는 직업유형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식료품비와 피복·신발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지난 20년간 직업유형간의 차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농업직을 제외하고 직업유형간의 소비지출구조의 차이변화를 보면 교통통신비에서만 직업간

의 차이가 확산될 뿐 다른 소비비목에서는 유지 혹은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다.

Ⅲ.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구조의 차이 (횡단분석:도시근로자가계를 중심으로)

시계열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은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변화추이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가구주의 직업유형이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그 동안 수행한 분석상의 문제로 인해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즉 직업간 소비지출양식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직업유형으로 가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나 제시한 가구주의 직업유형별 가계의 특성분석 결과(표 2 참조)에서와 같이 각 직업유형별로 상당히 다른 경제·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상당부분의 가계의 선호는 이들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소비지출양식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이러한 가계의 제반 경제·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이 소비지출양식에 미치는 효과를 제어하고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선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지출구조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가구주의 직업유형이 소비지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Joint-test를 통해 검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사무직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직업유형과의 소비지출구조의 구체적인 차이를 t-test를 통해 밝혔다.

1. 연구자료

가구주 직업유형별 소비지출 양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1996년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1996년 도시가계조사의 표본은 700개 조사구에서 약 5,500가구가 추출되었으며 월평균 조사가구수는 5,233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 자료 중 소득관련 자료가 있는 근로자가구자료에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가구만을 추출하였다. 매월의 가계수지 관련항목을 합산하여 12개월

로 나누어 가구당 연간 월평균을 환산해서 사용하였으며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12월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소득이나 소비지출에서 극단치를 나타낸 가계의 경우 결과의 편의를 야기할 수 있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 총 1551개의 근로자 가구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³⁾

횡단 분석에서는 모두 27종으로 분류되어 조사된 근로자가계의 가구주 직업을 시계열분석과 맥을 같이하기 위해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의 분류는 유지하였으며, 반면 생산·기능직은 직무의 전문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능근로직, 장치조작직, 및 단순노무직 등으로 세분하여 6개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소비지출비목도 좀더 세분화 하였는데 식료품비의 경우 내식비와 외식비로 구성되나 외식의 경우 그 증가폭이 크고 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내식비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식료품비를 내식비와 외식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교육비의 경우 우리나라의 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교육비를 필수적인 지출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나 이에 반해 교양오락은 선택적인 특성이 있는 지출로서 이들을 합해서 통상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상반된 성격으로 인해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교통·통신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이들을 세분하여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소비지출비목을 내식비, 외식비, 주거비, 가구 및 가사용품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개인교통비, 공공교통비, 통신비, 경조비, 기타소비 등의 14대 비목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2. 실증분석 모형 및 분석방법

일반적으로 가계의 예산배분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비지출구조 즉 소비패턴은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가계구성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계가

수행한 경제적 행위의 결과이다. 이러한 예산배분행동은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득과 시장가격 및 가계구성원의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가계가 처한 시장환경이 같아 시장가격이 일정하다면 가계의 예산배분행동 즉 소비패턴은 소득과 가계구성원의 욕구와 필요의 우선 순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동일할 때 가계구성원의 욕구와 필요의 우선 순위는 가구주의 직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다음식(1) 및 (2)와 같은 소비지출함수를 설정하였다.

$$W_i^* = \alpha_i + \beta_i \log Y + \sum \sum \gamma_{ij} JOB_j + \sum \sum \delta_{ik} X_k + \varepsilon_i \quad (1)$$

$$W_m^* = \alpha_m + \beta_m \log Y + \sum \sum \gamma_{mj} JOB_j + \sum \sum \delta_{mk} X_k + \varepsilon_m > 0 \text{ 경우}$$

$$W_m^* = 0 \quad W_m = 0 \text{ 경우} \quad (2)$$

식(1)은 회귀모형으로 내식비, 외식비, 가구 및 가사용품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공공교통비, 통신비 및 기타소비에 해당하며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계수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주거비, 교육비, 개인교통비 및 경조비의 경우 각각 전체표본가계의 11.9%, 20.0%, 29.9% 그리고 89.0%가 이들 비목에 대해 전혀 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값이 0에 편중된 censored sample의 경우 최소자승법의 적용은 편향되고 비일관적인 추정치를 낳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지닌 경우 Tobit 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Maddala, 1991) 이들 비목에 대해서는 식(2)와 같은 Tobit 모형을 설정하여 최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계수를 추정하였다. 이들 계수는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만을 제시할 뿐 그 영향력의 크기는 제시하지 못하나 여기서는 한계효과를 계산하여 제시하였다⁴⁾.

여기서 W_i 및 W_m , Y , JOB_j , X_k 는 각각 총소비지

3) 도시가계원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자가 및 전세평가액이 기타소득과 주거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기타소득과 소득원별 소득액의 합으로 이루어진 가계소득 그리고 주거비와 각 비목별 소비지출액의 합으로 구성된 소비지출액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에서 각 소비비목($i=1\sim 10$: 내식비, 외식비, 가구 및 가사용품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공공교통비, 통신비 및 기타소비; $m=1\sim 4$: 주거비, 교육비, 개인교통비 및 경조비)이 차지하는 비중, 가계소득, 가구주의 직업유형($j=1\sim 5$: 전문·관리직,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 농업직, 자영직) 그리고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k=1\sim 8$)을 의미한다. 가계의 선호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들로 가구주의 직업유형 이외에 분석모형에 포함된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거주지역, 가구원수, 취업인수,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연령 및 연령의 제곱, 자가보유상태 등이며 가구원수, 취업인수, 가구주의 연령 및 연령의 제곱이외의 변수는 가변수화 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주의 직업유형이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Joint F-test를 실행하였다. 먼저 식(1)과 (2)(무제한회귀식)를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추정해서 잔차자승합(ESSur)을 구한 다음 직업유형의 가변수들을 제외시킨 제한회귀식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잔차자승합(ESSr)을 구한다. 여기서 영가설은 무제한모형에서 제외시킨 변수들은 종속변수의 변화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즉 가구주의 직업유형은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이는 F-분포를 갖는다.

$$[(ESSr-ESSur)/q] / [(ESSur)/(n-k)] \sim F(q, n-k) \quad (3)$$

여기서 q 는 제외된 변수의 수이며 n 은 분석에 사용된 총표본수, 그리고 k 는 무제한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수이다.

Joint test를 실시한 후 가구주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가구주의 직업이 사무직인 가계를 기준집단으로 하여 t-test를 실시

하였다. 모든 분석은 경제통계패키지 LIMDEP 7.0을 이용하였으며 잠재하는 이분산성 문제는 공분산 행렬을 수정함으로써 해결하였다.

3.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횡단분석자료 표본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라 횡단분석자료 표본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표 2)과 같다. 총 표본 1,551가구 중 23.6%가 전문·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16.6%는 사무직에, 6.3%는 판매·서비스직에, 24.1%는 기능근로직에, 17.2%는 장치조작직에 그리고 12.4%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전체표본의 평균 가구원수는 3.8명이며 평균1.6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가구주 연령은 42.1세이며 9가구중 1가구만이 여성가구주 가계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았고 10가구중 6가구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215만원을 벌며 이중 64.5%를 소비지출에 이용하고 있으며 주된 소득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부업소득의 순이었다.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라 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업소득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원수는 판매·서비스직가계가 가장 적으며 다음이 단순노무직가계로 나타났으나 취업원수는 오히려 이들 가계가 다른 직업유형에 종사하는 가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연령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50.5세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이 37.6세로 가장 낮았다. 가구주가 전문·관리직, 기능근로직, 장치조작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대부분 남성가구주 가계였으나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절반 정도가 여성가구주 가계였으며 단순노무직가계도 4분의 1가량이 여성가구주

4) 한계효과의 계산방법은 McDonald & Moffitt(1980)을 참조하기 바람.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LIMDEP Program의 option 중 하나(marginal)를 이용하였음.

5) 본 연구의 표본과 비교하기 위해 199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조사보고서(통계청, 1995)의 직업구성을 농림수산업을 제외하고 재구성하여 살펴보았다. 농림수산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총 취업자 중 전문직에 12.5%, 관리직에 5.1%, 사무직에 17.3%, 판매직에 18.8%, 서비스직에 14.1%, 그리고 생산직에 32.2%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표본이 특히 전문·관리직에서는 과다 추출되었으며 판매·서비스직에서는 과소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가구주의 직업유형별 횡단분석자료 표본가계의 특성

특 성	전체표본 (n=1,551)	전문·관리직 (n=343)	사무직 (n=258)	판매·서비스직 (n=99)	기능근로직 (n=383)	장치조작직 (n=270)	단순노무직 (n=198)	F값	
가구원수(명)	3.8	3.9 ^a	3.8 ^a	3.4 ^c	3.8 ^a	3.9 ^a	3.6 ^b	4.86 ***	
취업인수(명)	1.6	1.5 ^c	1.5 ^c	1.6 ^{bc}	1.6 ^b	1.5 ^{bc}	1.8 ^a	8.30 ***	
연 령(세)	42.1	41.3 ^{bc}	37.6 ^d	43.0 ^b	42.9 ^{bc}	40.8 ^c	50.5 ^a	43.81 ***	
소 득(원)	2,150,090 (100.0)	2,699,586 ^a (100.0)	2,309,277 ^b (100.0)	1,735,408 ^c (100.0)	1,927,773 ^{cd} (100.0)	2,000,625 ^c (100.0)	1,831,949 ^{de} (100.0)	51.15 ***	
근로소득	1,854,172 (86.2)	2,367,217 ^a (87.7)	1,983,847 ^b (85.9)	1,436,239 ^d (82.8)	1,676,711 ^c (87.0)	1,744,500 ^c (87.2)	1,498,230 ^d (81.3)	56.32 ***	
부업소득	68,725 (3.2)	94,281 (3.5)	70,138 (3.0)	45,361 (2.6)	64,741 (3.4)	54,995 (2.7)	60,723 (3.3)	1.34	
기타소득	227,192 (10.6)	238,088 ^{abc} (8.8)	255,293 ^{ab} (11.1)	253,809 ^{ab} (14.6)	186,321 ^c (9.7)	201,131 ^{bc} (10.1)	272,996 ^a (14.9)	3.20 **	
소비지출(원)	1,387,467 (64.5)	1,701,855 ^a (63.0)	1,489,419 ^b (64.5)	1,157,603 ^d (66.7)	1,261,288 ^{cd} (65.4)	1,303,053 ^c (65.1)	1,184,120 ^d (64.6)	34.38 ***	
가구주 성별(%)	남	87.2	92.7	88.4	54.5	91.4	94.4	74.2	x ² = 152.41***
	여	12.8	7.3	11.6	45.5	8.6	5.6	25.8	
교육 수준 (%)	국졸	12.9	0.6	0.8	29.3	17.0	7.0	41.9	x ² = 1010.94***
	중졸	15.6	0.3	0.8	11.1	27.2	24.8	28.8	
	고졸	41.1	20.7	43.8	51.5	49.1	59.6	26.8	
	전문대	7.2	12	14.3	4.0	4.7	4.1	0.0	
	대학	19.7	53.1	36.8	4.0	2.1	4.1	2.5	
	대학원	3.6	13.4	3.5	0.0	0.0	0.4	0.0	
자가 소유 (%)	자가	62.8	68.5	65.5	47.5	61.6	60.4	62.6	x ² = 35.83***
	전세	27.7	25.9	30.2	39.4	24.8	28.1	26.8	
	월세	9.5	5.5	4.3	13.1	13.6	11.5	10.6	

*** p < 0.01; ** p < 0.05; * p < 0.10

가계였다. 그러나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각각 66.5%와 40.3% 인 반면 기능근로직, 장치조작직, 및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가구주는 가장 많은 경우가 고졸 정도의 교육수준이었으며 단순노무직의 경우 국졸이 41.9%로 가장 많았다. 특이한 점은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경우 국졸의 교육수준을 보이는 가계가 29.3%로 단순

노무직종사자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직업종사자에 비해 낮은 학력수준을 가진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자가보유 비율도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가구가 가장 낮았으며 월세의 비율도 기능근로직에 종사하는 가계와 더불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소비지출수준은 직업유형에 따라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전문·관리직, 사무직, 장치조작직과 기능근로직, 단순노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의 순으로 그 크

기가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구주의 직업유형별로 가계는 뚜렷한 경제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4.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구조의 차이 (사무직 가계를 기준으로)

다음의 (표 3)는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로서 본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각 비목별 소비지출구조의 변화를 3%에서 26%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의 유의수준에서 모든 소비비목에 대해 본 연구의 실증분석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Joint-test를 통해 「가구주의 직업유형이 소비지출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모두 9개의 소비비목에서 가설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공공교통비와 개인교통비의 경우 직업유형은 이들 비목의 소비구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다음의 (표 4)는 실증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가지고 사무직가계를 기준으로 직업유형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단지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

지출구조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사무직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소비지출구조의 차이를 나타내는 직업유형은 단순노무직으로 모두 7종류의 소비비목(내식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기타소비, 경조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기능근로직과는 5개의 비목(외식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통신비)에서 그리고 전문·관리직(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기타소비)과 판매·서비스직(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은 3개의 소비비목에서 사무직과 다른 소비지출구조를 보였으며 그리고 장치·조작직과는 가장 유사한 소비구조를 보여 2개의 소비비목(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에서 만 차이를 보였다.

소비비목별로 살펴보면 주거비, 광열·수도비, 공공교통 및 개인교통비에서는 모든 직업유형에서 사무직과 동일한 소비지출구조를 보여 직업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내식비는 단순노무직만이 외식비의 경우 기능근로직가계만이 사무직과 다른 소비지출구조를 보여 사무직 보다 유의하게 많은 예산을 내식비와 외식비에 각각 배분하였으며 다른 직업유형은 사무직과 같은 내식비와 외식비지출구조를 보였다. 가구·집기는 사무직가계가 총예산의 4.0%를 할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구조는 판매·서비스

〈표 3〉 회귀모형검정 및 Joint-test 결과

소비비목	R ²	F-값	Joint-test(F)	소비비목	R ²	F-값	Joint-test(F)
식품(내식) (외식)	0.18	16.69***	1.98*	교육	-	(97.29***)	1.89*
	0.13	12.93***	2.81**	교양오락	0.08	7.00***	2.96**
주거	- ^{a)}	(506.55***) ^{b)}	1.76	공공교통	0.18	17.98***	1.05
광열·수도	0.26	29.77***	0.90	개인교통	-	(260.69***)	0.52
가구·집기	0.03	2.47***	0.83	통신	0.08	7.28***	1.91*
피복·신발	0.07	5.78***	2.01*	기타소비	0.15	15.20***	2.28**
보건·의료	0.07	6.35***	1.97*	(경조비)	-	(1461.18***)	2.19**

*** p < 0.01; ** p < 0.05; * p < 0.10

^{a)} 빈칸은 tobit 분석결과로 연구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통계량이 없어 제시하지 못함

^{b)} 괄호안은 x² 값임 (df=19)

〈표 4〉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구성비 추정치의 차이 (사무직과의 비교: t-검정)

(단위: %)

직업유형 소비비목	사무직	전문· 관리직	판매· 서비스직	기능 근로직	장치 조작직	단순 노무직
식료품 (내식) (외식)	① 20.4	① 20.8	① 21.0	① 21.2	① 21.1	① 22.5*
	④ 9.5	④ 9.7	③ 9.7	③ 10.4 *	④ 9.0	③ 9.1
주거	① 3.2	① 3.6	⑩ 3.6	② 2.8	① 3.4	② 2.8
광열·수도	⑧ 4.9	⑧ 5.0	⑧ 5.1	⑧ 5.0	⑨ 4.8	⑦ 5.2
가구·집기	⑩ 4.0	⑩ 3.8	② 3.2*	⑩ 3.9	⑩ 3.8	⑩ 3.7
피복·신발	⑤ 7.7	⑤ 7.0*	⑤ 7.5	⑤ 6.9**	⑤ 6.8**	⑤ 6.8*
보건·의료	⑦ 5.1	⑨ 4.9	⑥ 6.3**	⑥ 5.6*	⑥ 5.9**	⑥ 5.9**
교육	③ 10.0	③ 10.1	④ 8.8*	④ 8.8*	③ 9.4	④ 7.6**
교양오락	⑨ 4.6	⑥ 5.8***	⑨ 4.3	⑦ 5.2	⑦ 5.1	⑧ 5.0
공공교통	② 3.0	② 3.1	① 3.5	① 3.3	② 3.0	① 3.4
개인교통	⑥ 6.0	⑦ 5.7	⑦ 5.2	⑨ 4.7	⑦ 5.1	⑨ 4.8
통신	③ 2.0	③ 2.0	③ 2.0	③ 2.2*	③ 2.1	③ 2.3*
기타소비 (경조비)	② 19.6	② 18.5**	② 19.8	② 20.2	② 20.6	② 21.1*
	3.3	3.4	3.7	3.1	3.6	3.8*

주: 원문자는 예산배분의 순위를 나타냄

*** $p < 0.01$; ** $p < 0.05$; * $p < 0.10$

스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판매·서비스직가계에서는 사무직가계보다 유의하게 낮은 예산을 가구·집기에 할당하고 있었다. 피복·신발비에 대한 소비지출구조는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 같게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무직보다 유의하게 적은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는 사무직과 전문·관리직이 유사한 소비양식을 보였으며 판매·서비스직, 장치·조작직, 기능근로직 그리고 단순노무직은 보건·의료비로 지출하는 예산의 비중이 사무직가계 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의 경우 사무직과 전문·관리직 및 장치·조작직가계가 같은 소비지출구조를 보였으며 판매·서비스직, 기능근로직과 단순노무직은 사무직보다 교육비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가계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사무직가계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양·오락비의 경우 전문·관리직만이 사무직과 다른 소비양식을 보여 유의하게 많은 예산을 교양·오락비에 할당하고 있었다. 교통비와는 달리 통신비의 경우 기능근로직과 단순노무직가계에서 사무직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예산의 몫을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비지출에 사무직가계는 총 소비지출의 19.6%를 할당하며 장치조작직, 판매·서비스직, 및 기능근로직가계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단순노무직가계는 유의하게 많은 예산을 기타소비에 이용하고 있으며 전문·관리직가계는 사무직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소비지출양식의 하나로 지적되는 과도한 경조비지출의 직업유형간의 차이를 보면 사무직가계에 비해 단순노무직가계가 경조비에 높은 예산배분비율을 보였으며 다른 유형의 직업은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직업유형에 따른 예산배분순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숲 직업유형에서 내식비와 기타소비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분하였다. 다음으로 사무직, 전문·관리직, 장치조작직에서는 교육비와 외식비 및 피복·신발비 순이었으나 판매·서비스직, 기능근로직, 단순노무직에서는 외식비와 교육비 그리고 피복·신발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사무직의 경우 개인교통비였으나 전문·관리직에서는 교양오락비에 그리고 나머지 직업유형에서는 보건·의료비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었다. 사무직과 전문·관리직에서는 다른 직업유형에 비해 보건의료비에 대한 예산배분의 우선 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유형이 소비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직업유형별 소비지출구조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먼저, 다른 직업유형에 비해 사무직은 피복·신발과 교육비 중심적인 소비구조를 지니며 전문·관리직은 교양오락비 중심적인 소비구조를 지닌다. 판매·서비스직은 피복·신발 및 보건·의료비 중심적이며 모든 생산관련직들에서도 보건·의료비 중심적인 소비구조를 보였다. 특히 기능근로직은 외식비와 통신비에 그리고 단순노무직은 통신비와 경조비를 비롯한 기타소비에 많은 예산을 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직업유형별 소비지출양식의 변화를 양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므로써 직업유형간의 소비생활의 동질화 혹은 이질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소비생활양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직업유형의 역할을 규명해보고자 시도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인 측면에서 총소비지출규모 및 비목별 소비지출규모는 모든 직업유형에서 향상되었으며 특히 생산·기능직, 자영직 및 농업직에서 소비규모가 큰 향상을 보여 직업계층간의 소비수준이 점차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직업유형간에 지출규모의 변

화양상 특히 비목별 변화추이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서로 유사한 소비계층으로 직업을 나누어보면 총소비규모의 동질성 측면에서는 전문·관리직집단, 사무직, 농업직 및 자영직집단 그리고 생산·기능직과 판매·서비스직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반면 비목별 지출규모의 동질성 측면에서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집단, 판매·서비스직집단, 생산·기능직과 자영직집단 그리고 농업직집단으로 더욱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교통통신비를 제외하면 모든 소비비목에서 농업직을 제외한 직업유형간에 소비지출구조가 수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렴 현상은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 즉 소비지위의 향상에 따른 소비욕구의 고급화와 동질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통신비의 경우 직업유형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 교통통신 특히 개인교통에 대한 소비확대의 여지가 남아 있어 이 비목에서도 머지 않아 소비구조의 동질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직업유형간의 소비지출구조의 차이는 존재하더라도 소비지출구조의 변화추이는 모든 직업유형에서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 직업유형간의 소비욕구의 변화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소비생활양식을 통해 볼 때 농업직은 다른 직업유형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집단으로, 비록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규모의 증가는 모든 직업유형에서 동일하다고 할 지라도 다른 직업유형의 가계와는 상이한 소비비목간의 선호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선호체계의 차이를 시계열분석의 결과만을 가지고 단지 직업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농가는 도시가계와 상이한 교육환경, 시장환경, 문화·서비스환경 등 제반 생활환경에 처해 있으며 또한 서로 다른 가정생활주기나 가족구성 혹은 가치관 등으로 인해 소비생활양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농업직과 타 직업유형간의 소비지출양식의 차이는 직업자체 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보여지며 도시·농간 소비지출양식의 차이는 지속적인 도시화과정에서도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넷째, 소득 및 가계의 선호를 지배하는 다른 특성

들이 동일할 때 소비지출양식이 직업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임으로서 직업이 가계의 선호체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특성임이 입증되었다. 특히 피복·신발비와 보건·의료비는 다른 소비비목에 비해 직업과 더욱 관련되어 있는 소비지출비목으로 식생활이나 주거양식 또는 문화생활양식에서는 특정 직업유형에 개인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소비양식이 존재하지 않지만 의복양식에는 직업유형에 따라 요구 혹은 기대되는 전형적인 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체노동직에 종사하는 경우 상대적인 위험노출 가능성의 증대로 인해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직종에 비해 질병이나 사고도 더 잦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도 더 높으며 따라서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용주나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결과만을 가지고 직업유형이 계층을 구분하는 단일 지표로서 적합함을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나 소비비목의 분류를 8대 비목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므로서 비목내에서 상이한 성격을 지닌 세목에 대한 소비양식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농업직과 자영직의 경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직업유형이 소비지출양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측정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소비비목을 좀더 세분화하거나 기존의 용도에 따른 분류체제를 벗어나 소득반응정도나 선호에 따라 소비비목의 분류를 정교화하여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한다. 가계수지에 관한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은 개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자료에 의존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현재와 같이 정부가 가계수지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도시가계조사와 농가경제조사로 구분하는 대신 이를 통합하고 자영직 종사자에 대한 소득파악에도 좀더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 가계의 수지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기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김기욱·이승신 (1990),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5-31.
- 김영모 (1982), 한국사회계층연구, 일조각.
- 김영숙 (1996), 도시가계의 경조비지출구조 분석, 소비자학연구, 7(2), 1-22.
- _____·심미영 (1994), 도시근로자가계의 주생활비 소비지출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2), 1-16.
- _____·왕인숙 (1989), 도시가정의 피복류 소비지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7(4), 21-39.
- 김정숙 (1992), 도시근로자가계의 소비지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36.
- 노윤주·이연숙 (1997), 도시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 주기별 소비지출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27-42.
- 문숙재·정순희 (1995), 소비지출패턴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편모가족과 양부모가족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6(2), 53-66.
- 박명숙·류정순 (1998), 도시가계의 경조비지출 변화 추이와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13-24.
- 배미경·박광희 (1997), 도시가계의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415-428.
- 백옥인(1994), 계급별 소비구조 변동과 생활양식,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연구소, 181-200.
- 양세정 (1998),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 대한가정학회지, 36(1), 169-186.
- _____ (1993), 주부의 취업이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4(2), 17-28.
- _____ (199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2, 54-67.
- 여운승 (1996), 사회적 요인에 의한 소비패턴의 형성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3, 한양대학교경영연구소, 125-184.
- 제미경·박명희 (1993),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과 관련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1(3), 1-14.
- 최현자 (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

- 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홍두승 (1988), 직업과 계급: 집락분석을 통한 계급 분류, *한국사회학*, 22(겨울호), 23-45.
- _____ (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3), 68-87.
- 홍두승 · 김병조 · 조동기 (1999), *한국의 직업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 Choe, Hyuncha (1999), Net Effects of Consumer Credit on Consumption Expenditures in Korea,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6(4), 207-211.
- Hudson, R. & T.A. Sullivan (1996), *The Social Organization of Work*, 2nd. ed., New York: Wadsworth Publishing.
- Rothman, R.A. (1997), *Working: Sociological Perspectives*, Upper Saddle River, NJ:Prentice-Hall.